



## 금형합금 國産化의 기수

東成몰드알로이 李漢重 사장



〈李漢重 사장〉

'84全國優秀發明品 전시회에서 영예의 大統領賞을 수상한바 있는 李 사장은 본디 금형업을 하는 형의 회사(東成단조)에서 일하다가 독립해 나와 85년 6월 東成몰드알로이를 創業했다.

형의 회사는 플라스틱 단조를, 자신의 회사는 플라스틱 금형을 각각 전문 생산하기로 했다.

創業구상은 李 사장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일으키기 전까지 형의 회사에서 新技術開發에 주력하며 이 分野의 専門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그

런 가운데 금형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國産化해 보겠다는 의욕으로 研究開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미련한 사람이 開發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開發이라는 것은 사람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지능지수가 높아서도 아니고, 결국 踔점은 집념으로 모아지는데 투철한 正心력을 가졌느냐에 의해 원하는 開發이 이루어 진다고 봅니다.』

李 사장은 지금까지 開發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모두 해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자기 分野에서, 자기가 알고있는 범위내에서 「이것은 해야겠다」고 마음이 가면 모두 開發했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東成몰드알로이에서 開發하려는 것은 금형을 위한 新소재開發이라 開發費가 무척 많이 들어간다. 회사를 創業할 당시 자본금이 1억 5천만원이었는데 비해, 創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開發費는 2

억원이 넘는다고 李 사장은 추산한다.

『우리가 企業을 이끌어 나가고, 살아남을 수 있는 方法은 단 한가지 開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본이고,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회사에서는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기존제품은 한번도 生産해 본 적이 없어요. 모두 獨創의 開發을 해서 제품을 生産했지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方法은 한번도 답습해 보지 않았어요.』

李 사장은 新技術을 보유한 것이 크나큰 밑거름이 되었지만 30여명의 종업원들에게 회사발전이 나의 발전이라는 동기를 부여하고, 一心同體가 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한 덕분에 創立때보다 그야말로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었고, 내일도 내다보게 되었다. 東成몰드알로이의 주거래처는 플라스틱 사출 금형업체들. 이제는 전국적으로 거래선을 넓혔고, 釜山에는 支社도 設置했다. <○>

# 第38回 發明教室

## 4月 11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4月 11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38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時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이달에도 200여명이 參席...○
- ...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서는 東成물드알로이 李漢重 社長과...○
- ...(株) 韓國宇昌 崔一燮 社長の 成功事例 發表에 이어 洪載日 辨理士의 「工業所有...○
- ...權制度」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
- ... 두 發明人的 成功事例를 간추려 紹介한다. ....<朴鎔碩 記>...○

## 가스殺蟲時代 연 貿易

### (株) 韓國宇昌 崔一燮 社長

「필요는 發明의 어머니」라는 發明 金언을 立證한 貿易人이 있다.

(株) 韓國宇昌 崔一燮社장이 그 주인공. 崔社장은 貿易을 하다보니 남의 물건만 사다가 팔아주는 것이 안타까워 자신의 물건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욕심(필요)이 생겨 發明에 도전한 결과 가스發生式 殺蟲 소독기를 發明, 輸出까지 하고있다.

崔社장이 이 소독기 發明을 결심한 것은 79年.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의 (株) 韓國宇昌을 設立하면서 부터이다.

자신의 물건을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가득찬 崔社장이 日本의 모 호텔에서 商談을 하고 있는데, 호텔 측에서 실내 소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독이 끝난뒤 살펴보니 그의 서류에 얼룩(잔류물질)이 적어 있었다.

『바로 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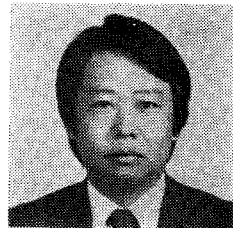
얼룩진 서류를 보는 순간 崔社장은 액체대신 기체를 사용하면 얼룩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와함께 기체, 즉

가스를 낼 수 있는 소독기만 開發한다면 日本등 외국 輸出도 가능한 것이라는 確信이 있었다.

약사인 아내로부터 DDVP라는 약이 살충력도 뛰어나지만 잔류성도 없어 얼룩도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이때부터 崔社장의 研究는 活氣를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액체를 기체화하는 소독기를 만들려면 소형이면서 고속인 모터가 필요한데 당시(82~83年)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모터가 生産되지 않고 있었다.

얼마동안 고심하던 崔社장은 소형고속 모터의 國産化를 결심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다. 만들었다 부수고, 다시 만들고, 또 부수고, 또 부수고...이러기를 1백여회나 계속한 결과 드디어 생각했던 소형 고속 모터를 開發은 했으나 1억원이라는 開發費가 들어가 버려 정작 研究를 마치고 제품을 生産하려고 보니 資金이 문제였다.

이에따라 崔社장은 84年 試製品을 가지고 서울시내 아파트의 소독



<崔一燮 社長>

대행에 나섰다.

성공이었다. 기존 소독기는 분무식으로 뿌리거나, 벌레가 있는곳에 약제를 놓아 구석구석의 벌레를 잡는데는 미흡하고 약제 살포시 집기나 가구등에 오염되어 소독이 끝난 뒤 이것들을 다시 닦아주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崔社장의 소독기는 기체(가스)를 내뿜으므로 약제가 구석구석까지 자동으로 번지고 소독이 끝난후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다. 여기에서 돈을 모은 崔社장은 84年 드디어 量産에 돌입, 지금은 國內시판은 물론 輸出까지 하고 있다. (☎)